

재미 지리정보 및 환경과학 협회 소식지

(Newsletter of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for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인사말

제 6 호 (2012) 안내



김창주 회장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incinnati

- 회장 인사 (표지)
- 교수 승진 과정 (표지)
- 기관 소개 (2 면)
- 2012 장학금 심사 결과 (3 면)
- 회원 소식 (3 면)
- 2012 이사진 (3 면)

발행인: 김창주, 편집인: 최운섭

KAGES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AG 학회로 바꿨던 2월 일정을 Spring break로 조금의 여유를 찾으셨으리라 기대했는데 어느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4대 KAGES 회장직을 일년동안 맡게 된 김창주입니다.

KAGES가 벌써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학회 초창기부터 항상 후원해주셨던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12 뉴욕 AAG학회에서는 약 7,000명이 참여하고 약 4,000여개의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 70여명의 재미 한국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며,

약 20여개의 연구발표가 한국 학교 및 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 및 주제를 보면서, 저희 KAGES의 역할이 갈수록 크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학회가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http://www.ksea.org/>)와 Dual Membership을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AGES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KSEA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회원들을 2013년 (April 9-13) L.A.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교수 승진 과정

이번호에서는 Reappointment, Promotion and Tenure (RPT) 과정을 소개합니다. 학교마다 용어가 다르지만 신입교수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 Reappointment 는 학교에 따라 1 회나 2 회정도 있는데, 1 회가 있는 경우는 3 년차에, 2 회가 있는 경우는 대략 2 년차와 4 년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먼저

학과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 대상자를 평가한 뒤 단과대학의 위원회로 전달하며, 이를 다시 단과대학의 위원회가 평가 및 추천 결과를 단과대학 학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대략 3-4 개월이 걸립니다. 단과대학 학장이 과와 단과대학의 평가를 종합해서, Provost (혹은 Vice President)에게 평가 및 추천을 합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Provost 가 내리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단과대학 학장이 합니다. 학장에서 Provost 의 최종 결정이 심사 대상자에게 내려올 때까지 약 2-4 개월이 걸립니다. 학과/학교 내규에 따라서 external review 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학 차원의 공식적인 과정 이전에 과 차원에서는 annual report 라고 해서 매년 학과장에게 대상자의 일년 업적이 보고됩니다. 이런 reappointment 과정이 지나면 6 년차에 tenure 및 promotion 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reappointment 와 거의 같습니다. 물론 tenure 및 promotion 의 경우 external review 는 필수조건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그전 학교의 경험을 인정받아 early promo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막 교수직을 시작한 회원님이나 곧 시작하실 회원님은 잘 참조하시고 경험 많은 회원들에게 문의하세요. (김창주 회원, 조교수, University of Cincinnati)

소개: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Kentucky

미국 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엘렌 켐플(Ellen C. Semple; 1863-1933) 여사는 지리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곳 켄터키 대학교의 지리학자들은 그를 특별하게 기억한다. 남부의 많은 대학교에서 여전히 지리학과를 개설하지 않고 있던 1920 년의 어느 날, 켐플 여사는 본인의 학문적 성취를 통해 목에 걸었던 영광스러운 컬럼 메달(Cullum Geographical Medal)을 켄터키 대학교에 기증하였다. 그는 당시 총장인 프랭크 맥베이 박사에게 학내에 지리학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교하였다. 비록 켐플 여사가 켄터키 지리학과와 창설을 보지 못 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의 노력은 1944 년에 비로소 결실을 맺어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켄터키 지리학자들은 매해 사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켐플의 날(Semple Day)로 정해 낮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지리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저녁에는 성대한 잔치를 즐기는데, 벌써 올해가 마흔 번째이다.

켄터키 대학교 지리학과는 대단히 강한 인문지리학적 전통을 유지해 왔다. 특히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 생태학 연구단(Political Ecology Working Group)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논문을 읽고 토론을 진행하며 매해 학술 대회(Political Ecology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를 개최해 왔다. 아울러 1992 년부터 사회 이론을 다루는 학술지 *disClosure: A Journal of Social Theory* 를 창간하여 출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문화지리학과 경제지리학, 인구지리학, 도시지리학, 환경지리학 분야에서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활발하게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인문지리학적 전통에 걸맞는 자연지리학과 지리정보학 과정을 만들고자 학과에서는 새천년에 들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도 저명한 자연지리학자인 조나단 필립스(Jonathan Phillips, Ph.D, Rutgers, 1985)를 영입한 이후 현재까지 다섯 명으로 구성된 자연지리학 분야 교수진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세부 분야는 하천/풍화 지형학과 생물/토양 지리학, 미기상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생물지형학(biogeomorphology)이라는 큰 주제 아래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0 년 가을부터는 브락(BRAG; Biogeomorphology Reading and Analysis Group)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집단을

결성하여 대학원생들과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지리정보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해 부교수와 조교수를 한 명씩 채용한 바 있다. 이들은 부임 직후부터 학과 내부는 물론 학교 전체적으로(예: University of Kentucky Geospatial Science & Technology Working Group) 관련 분야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해 왔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이 연합하여 New Mappings Collaboratory 라는 새로운 집단을 개설하게 되었다.

학과 소개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강조할 사안이 있다. 켄터키대학교 지리학과는 전통적으로 교수진과 대학원생들 사이에 강한 친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학원생들은 매월 열리는 학과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교수진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최근에는 학과 내규를 개정하여 신규 교수 임용 시에 대학원생들이 회의를 거쳐 중지를 모아 최종 투표에 한 표를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통은 매주 금요일 오후 다섯 시에 학교 인근 주점에서 열리는 해피 아워(Happy Hours at Pazzos)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음주와 음악을 즐기며 한 주를 마무리한다. (김대현 회원, 조교수, 켄터키대학교 지리학과)

2012 장학금 심사 결과

이번 뉴욕 총회에서 재미지환협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상자에게 축하를, 심사위원과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혜선 (Ohio State Univ.): Pixoneer Scholarship
- 박 에드워드 (Univ. of Texas): Pixoneer

회원 소식

김대현 회원 (Univ. of Kentucky)

초빙강연: 2012 GIESN Center Spring Seminar Series, "Wind-driven sea-level variation influences hydrological, geomorphic and floristic dynamics of salt marshes"

김창주 회원 (Univ. of Cincinnati)

- PI, Multi-Hazard Mitigation Plan Updat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Amount = \$60,775
- Co-PI, Toward a Circumarctic Lakes Observation Network (CALON) - Multiscale observations of lacustrine system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mount: = \$966,000

김화환 회원 (Univ. of West Georgia)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귀국

최운섭 회원 (UW-Milwaukee)

2012년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IGC 참가를 위하여 AAG-NSF IGU Travel Grant (\$1,250)와 UWM 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Faculty Travel Award (\$300) 받음.

2012-2013 Board members

President: Dr. Changjoo Kim

Vice President: Dr. Heejun Chang

Secretary: Dr. Daekwon Han

Treasurer: Dr. Gi-Choul Ahn

Scholarship

- 김혜영 (Ohio State Univ.): Sim Travel Award
- 이주미: Sim Travel Award
- 김익희 (San Diego State Univ.): Pak Best Paper Award